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2월 27일

Cuomo 주지사는 이스트만 비즈니스 파크를 위한 DEC, KODAK, EPA의 합의를 발표

합의를 통해 제네시 강과 EBP에 경제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정화를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제네시 강을 재조정하고 이스트만 비즈니스 파크 (EBP)에서 환경 정화를 계속하기 위해 환경 보존부 (DEC)와 이스트만 Kodak 회사 간의 합의가 미국 정부에 의해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환경보호국 (EPA). 합의는 EBP 주위에 깨끗한 환경을 보장하고, 그 지역에 추가적인 경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합의는 우리가 제네시 강을 청소하는 동시에 이스트만 비즈니스 파크를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지역 허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와 협력을 한 EPA를 칭찬합니다.”

부지사 Robert J. Duffy는 “이스트만 비즈니스 파크는 로체스터 경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이스트만 비즈니스 파크는 지속적으로 투자처를 찾고 지역을 선택하는 많은 기업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개발은 다시 한번 로체스터 주지사의 노력을 보여주고, 지역경제의 개선하기 위한 긍정적인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

환경 보전 국장 Joe Martens은 “Kodak과 합의한 DEC의 자금을 통해, DEC는 과거의 환경 정화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스트만 비즈니스 파크를 제네시 강에서 기업과 수생 생물에게 또 다른 뉴욕 주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및 위원 Kenneth Adams는 “이스트만 비즈니스 파크는 로체스터의 도시와 뉴욕 주의 고용의 중요한 중심지이다”고 말했다. DEC, Kodak과 EPA 사이의 합의는 EBP의 현재와 미래의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미래의 민간 투자 및 일자리 증가를 허용할 것입니다. “

오늘, EPA는 DEC와 Kodak의 2013년 8월 합의를 승인하였습니다. 그 합의는 Kodak의 파산 개편의 일환으로 사전에 승인되었고 제네시 강의 환경 정화 및 EBP의 유지 보수 활동에 대한 위탁 사업을

Korean

구축하기 위해 Kodak은 4천9백만 불을 기여해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뉴욕 주도 환경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5천만 불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체 비용이 9천9백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래의 환경 정화를 해결하기 위해 Kodak과 국가에서 추가 자금을 제공 할 것입니다.

합의는 EBP의 미래 재개발자 및 재산 소유자에게 과거 산업에서 유출 및 방전으로 인한 정화 활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 합의는 EBP를 재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과거의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정량화함으로써, 이 합의는 Kodak이 파산 사후 제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합의 하에 우선 일정에 따라 DEC는 제네시 강과 이스트만 비즈니스 파크의 정화 활동을 관리할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 후, DEC는 제네시 강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계획을 개발하고 EBP에서 지속적인 환경 유지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EPA는 DEC가 마지막 개선 방안을 선택할 때 핵심적인 지점에서 조언을 제공 할 것입니다. 또한, DEC와 Kodak은 정화 활동에 대하여 강화된 공공 봉사 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상원 의원 Charles E. Schumer는 “로체스터의 사람들을 위해 합의에 다다른 EPA, DEC와 Kodak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 상식적인 합의는 이스트만 비즈니스 파크를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현재의 것들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포장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대표인 Louise Slaughter는 “우리 지역 경제의 미래는 수천 만의 영리한 근무자들의 고향이자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십 개의 회사의 고향인 이스트만 비즈니스 파크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EPA의 워싱턴 사무실에서, 뉴욕 주 DEC, Kodak, 저의 사무실까지 환경을 보호하고 이스트만 비즈니스 파크의 미래를 보장하는 합의를 찾기 위해 몇 개월의 과정을 통해 건설적으로 일했습니다. 함께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공원을 우리 지역에서 최고의 경제 발전의 자산으로 위치하면서 공원 및 제네시 강의 지속적인 미화 사업의 투자 자원을 제공하는 균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파산 법원 또한 합의에 승인해야 합니다. 법무부에서 합의에 서명 한 후, EPA는 30 일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제공 할 것입니다. 모든 승인은 5월 초순까지 가능합니다.

과거 Kodak Park로 알려진 Eastman Business Park(EBP)는 로체스터시부터 Monroe 카운티의 Town of Greece를 이어주는 1,200에이커의 대규모 기술 및 산업 단지입니다. EBP는 미국 동부의 최고 산업 현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준 인프라 시스템과 함께 100평방피트에 달하는 제조, 연구실 및 창고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휘에 따라 뉴욕주는 R 연구개발(R&D) 및 하이테크 제조 분야를 위한 다양한 허브로 변환하고 있는 수십여 개의 신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약속한 9,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 비즈니스 파크에는 50개의 기업과 6,5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직업은 Kodak과 상관이 없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